

부산시립무용단  
제43회 정기공연

탈춤의 정신을 현대화시킨 새로운 한국창작춤

# 영노 99 청룡 21

2000.8.4(금) 19: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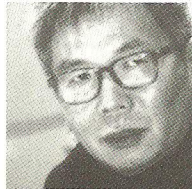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대강당  
P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안무·구성: 이 노 연 (수석안무자)

함께 만드신 분들



대본: 채 의 완



무대미술: 윤 정 섭



음악: 황 의 중



드라마트루기: 이 상 봉



의상: 이 나 경



연출: 정 승 천

무대제작: 안 천 흥  
무대감독: 곽 동 인  
조 명: 신 상 준  
음 향: 이 상 기  
무 대: 서 중 철



## 「영노 99 청룡21」

## I 장. 암각화 또는 빌딩의 그림자

- ① 무대 가득히 상하수직으로 원시시대 삶과 문화의 흔적을 보여주는 울산 반구대 바위 그림처럼, 인간과 동물, 식물, 배, 바다 등의 생체 형상이 암벽처럼 드리운 무대 장치에 원초적 생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마치 그 생체 형상의 그림은 거대한 기업체의 빌딩에서 각종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 같고, 아니면 거대한 고급 호텔이나 아파트의 내밀한 공간에서 각종 양태로 얽혀 있는 군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 ② 이러한 거대한 공중 동작군을 배경으로 하여 가너린 몸매의 임산부 한 사람, 무대를 씩씩하게 휘젓고 지나간다.
- ③ 암벽이 흔들리고, 빌딩과 호텔과, 아파트가 흔들려 거기에 붙박이로 있던 동작 군상들도 흔들려 떨어지고 자빠지고 매달리고 요동친다.

II 장. 수세식 화장실 또는 영노의 잠적 호텔, 또는 술집, 또는 가정의 수세식 화장실에서 각종 일을 보는 군상들. 화광의 충천 속에 먹고 싸고 뺄는다. 마지막 물 내려가는 소리가 옛적 고향에서 들던 시냇물 소리 같다.

## III 장. 일동 잠수, 휴식 끝.

- ① 풀장 아니면 호수, 또는 뚝바다 아니면 물 쓰레기를 쌓아 올린 바벨탑, 그 속에서 청춘남녀들이 얼굴을 수면 위에 내놓고 자먹질하고 논다.
- ② 휴식 끝 소리와 함께 일동 잠수한다.
- ③ 임산부 등장하여 끝없이 붉은 피를 쏟아낸다. 영노의 울음소리가 들릴 듯 끊어진다.

## 작품의도

빛나는 21세기, 새천년의 꿈과 소망이 부풀어오르는 이 시대에 우리는 수백년동안 우리나라 각지에서 공동체의 신명풀이가 되어온 “야류” 즉 “들놀음”을 생각했다. 그 중에서도 민중의 소망이 함축적으로 연희되었던 “영노과장”에 주목하였다. 이 작품은 미처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영노가 양반 99명을 잡아먹고 다시 한 양반을 만나 서로 해학적이고 걸쭉한 재담과 춤사위로 연희하다가 마침내 영노가 양반을 잡아먹는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무리는 어찌 그다지 신통치를 못했다. 작가는 이에 주목하고 이는 그러한 민생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을 알기에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끝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했다. 이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전하는 “아기장수 설화”와도 유사하다. 한 촌부가 노경에 낳은 아기가 신묘하게 빨리 자라고 영특하며 겨드랑이에 날개가 솟는데 이에 겁에 질린 아버지가 아기장수를 죽인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아들이 역적이 되리라는 두려움, 뛰어난 인물은 세상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 속에는 좌절된 역사 창조의 의지로 해서 생긴 쓰라림이 담겨있다. 그러면서도 이러한 전설은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바꾸어 놓을 장수에의 간절한 기대가 역설적으로 나타나 있다. 영노의 끝 장면은 어딘지 아기장수 설화와 맞닿아 있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소망을 해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리고 옛시대 민생의 가장 큰 문제거리였던 양반을 오늘날 인간의 도에 넘친 탐욕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수많은 “쓰레기” 즉 “환경 오염”이라고 생각했다. 이는 환경 오염이야말로 인간과 자연의 생태계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마침내 자연도 인간도 해치는 오늘날의 가장 큰 문제거리이기 때문이었다. 우리 춤의 신명과 해학으로 전통의 연희인 “탈춤”을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은 머리 끝부터 발 끝까지 환경 쓰레기 더미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자화상을 창의성 있는 현대적인 춤사위로 들추어보이고 일깨워주고 있다. 제3장의 “일동 잠수, 휴식 끝”은 오늘날 인구에 회자되는 민담 중 하나를 패러디한 내용이다. 한 악인이 지옥에 도착하자 지옥대왕이 세 개의 지옥 형벌을 보여 주며 고르라고 한다. 즉 바늘이 솟은 땅을 끝없이 피 흘리며 맨발로 걷는 형벌과 불지옥에서 타는 형벌과 뚝통 속에 고개만 내밀고 몸을 빠뜨리고 있어야 하는 형벌이 그것이다. 악인은 그래도 세 번째가 좀 수월할 줄 알고 선택하고 몸을 뚝통 속에 집어넣었는데 들어가자마자 숨쉬는 것은 100년에 한번씩만 있는 일이라며 모두 잠수하라고 지시한다는 우스개 이야기이다. 즉 인간은 자신이 지은 업보로 말미암아 온통 뚝통어리같은 오염 속에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다. 우리는 이번 작품에서 영노를 탄생시키지 못했다. 그는 일그러지고 뒤틀린 현대인의 삶 한복판에서 태어나지 못한 채 죽어간다. 마치 아기장수처럼. 영노의 피흘림은 곧 피셋음. 피 흘림 이후 찾아오는 세상의 평화는 속죄양 즉 순교자이기도 한 영노의 피셋음으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야류의 영노과장을 통해 이 시대를 바라보고자 한다. 언제나 현재형으로 민중의 가장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해갈시켜 주는 것이 바로 탈춤의 진정한 의미이기에....